

객석과 하나된 열정의 클래식 선율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앙상블 디토 공연이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앙상블 디토' 광주 공연 성료

“음악에 온몸을 맡기며 완전히 빠져들어 연주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의 연주하는 모습에 웬지 눈물이 났다.”, “강약을 조절하는 파워풀한 연주에 온전히 빠져들었다.”

2시간이 넘는 공연이 끝난 후, 광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만난 관객들은 상기된 얼굴로 연주회에 대한 감상을 전했다.

현재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앙상블 디토의 무대는 역시 달랐다. 탄탄한 실력과 완벽한 호흡, 젊은 패기가 어우러진 연주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6명의 멤버가 다양한 앙상블을 이뤄 선보인 연주는 각각의 독특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며 감동을 전했다.

지난 18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앙상블 디토' 공연은 앙상블의 진수를 선보인 열정적인 무대

멤버 6명 박진감 넘친 하모니
1500여 관객 환호·감동의 물결
공연후 사인회 클래식 팬 몰려

로 객석을 가득 메운 1500명 관객을 사로잡았다. 광주일보사가 창사 66주년 기념 공연으로 마련한 이번 연주회는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지역 클래식 음악계에서 스타급 연주자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설명이 필요없는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해 지난 2015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하고 쾨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윤이산국제 음악콩쿠르 우승, 사라사테 국제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등을 휩쓴 대만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쟁, 한국계 최초 그래미 수상의 쾌거를 이룬 '파커 파르렛' 리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정, 줄리어드 음악원 출신으로 2014 루빈스타인 콩쿠르에서 2위 입상한 피아니스트 스티븐 린 등이다. 여기에 아시아인 최초로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첼리스트 문태국과 2016년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에서 1위 및 청중상 등을 동시수상한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까지 합류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날 음악회는 유치엔 쟁, 김한, 스티븐 린이 호흡을 맞춘 베르토크의 '대비(Contrast)'로 문을 열었다. 최근 유럽 명문 핀란드방송교향악단 클라리넷 부수석으로 임명돼 화제를 모은 김한은 두 대의 클라리넷을 번갈아 연주하며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 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지는 곡은 유치엔 쟁과 스티븐 린, 문태국이 함께한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삼중주 2번 마단조, 작품 67'이었다. 들릴듯 말듯한 첼로의 선율로 시작된 음악은 관객들을 몰입시켰으며 특히 슬픔과 비통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3악장에 관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인터미션 후 이어진 다니엘 정, 리처드 용재 오닐, 문태국, 스티븐 린의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2번 가장조 작품 26'은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였다. 4명의 연주자는 각각 화려한 기교를 선보이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대화하듯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폭풍처럼 몰아치는 4악장 연주가 끝나자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지자 유치엔 쟁, 다니엘 정, 문태국, 김한, 리처드 용재 오닐은 앙코르 곡으로 베버의 '클라리넷 오중주' 중 4악장을 들려줬다.

공연 후 열린 사인회에는 6명의 멤버 전원이 참석했고 길게 줄을 선 클래식 팬들은 공연 포스터와 팸플릿, 현장에서 판매한 CD 등에 사인을 받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8일 열린 앙상블 디토 공연이 끝난 후 열린 사인회에서 리처드 용재오닐 등 6명의 멤버가 사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이남 작가 월드컵 개최지 모스크바서 개인전

갤러리축 요구
2개월 전시 연장
7월 14일까지



▶ '4.27 평화, 새로운시작 단발령망금강'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작가가 월드컵이 한창인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초 러시아 주립대학 인문학 뮤지엄센터(RSUH Museum Center)에서 '꽃과 만물'을 주제로 열린 그룹전에 참여했던 이 작가는 당시 마스미디어아트센터(MARS Media Art Center)에서 '박연폭포'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 개인전도 함께 열었다.

전시가 끝났지만 갤러리 측의 요청으로 개인전을 2개월 연장, 오는 7월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A Path to Peace'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주 전시작은 겸재정선이 그려낸 천지지미(天地之美)를 재해석해 디지털

속 가상현실의 공간에 생생하게 드러낸 '박연폭포'와 최근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 닿을 수 없는 산과 산을 현대적인 이미지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남과 북이 평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4.27 평화, 새로운시작-단발령망금강' 등이다.

이 작가는 201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전시를 열었으며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개막식(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한편, 이 작가는 올해 창원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 등 국내전시 뿐만 아니라 상하이, 홍콩, 파리, 상파울루 등에서 열리는 해외 전시에도 참여하며 내년에도 네덜란드 헤이그, 사리에보 개인전을 비롯해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전시도 기획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계진 작가 개인전 21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김계진 작가 개인전이 오는 21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금호갤러리가 진행한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전에 선정돼 마련된 개인전이다.

작가가 주 소재로 삼는 건 카라꽃이다. 오래 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100송이 카라꽃의 아름다움에 빠진 작가는 꽃에서 작품의 영감을 떠올렸고 이후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며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 주제는 '행복을 찾아서(In Search of Happiness)-INNOCENCE'다. 'INNOCENCE'는 카라의 꽃말로 깨끗함과 순수한 감정 표현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김작가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마치 꽃밭에 앉아 있는 기분을 느끼길 바란다"며 "흰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진 카라꽃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INNOCENCE'

가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순수미술학과를 수료했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파크 '내가 뽑은 상반기 베스트 도서' 투표 이벤트

인터파크도서(book.interpark.com)는 2018년 상반기 베스트 도서 독자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내가 뽑은 2018 상반기 베스트 도서' 투표 이벤트는 내달 15일까지 진행되며, 투표를 통해 독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인 책을 선정한다.

후보작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82년생 김지영', '워너

원 포토에세이',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나미야 집회점의 기적', '연애의 행복', '언어의 온도', '신경끄기의 기술', '91층 나무집', '파리의 아파트', '말 그릇',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등이다. 투표를 한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자연의 소리...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 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 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 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